



눈 날씨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한때 ‘먹통’

22일 오전 6시10분부터 1시간여 시스템 장애 발생
도로 상태 CCTV 확인 위해 4900여 건 한 번에 몰려
자치경찰 “1만 건 동시 접속 등 서비스 개선 노력”

제주 지역 도로 상황이 담긴 270여 대의 CC(폐쇄회로)TV 영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1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22일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눈 날씨가 이어진 이날 오전 6시10분부터 7시25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이 정상적으

로 작동되지 않았다. 홈페이지 화면이 뜨지 않거나 느려지면서 CCTV 영상으로 출근길 도로 상태를 확인하려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1100도로, 516도로 등 일부 도로 통제 상황을 알렸으나 중간간 이상 도로의 경우 결빙 등 돌발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정보센터 측은 “오전 한때

동시 접속이 4900여 건에 이른 가운데 미디어 서버 이상으로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 시 사용자가 몰리면 서 드러나는 시스템 오류, 시간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평소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찾는 사례가 하루 2000~3000건이지만 이번처럼 눈이 내리는 날에는 접속자가 급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지난해 12월에는 겨울철 대설에 따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종전

3000건이던 홈페이지 동시 접속 수 용 건수를 5000건으로 늘렸다. 이보다 앞서 2024년에도 서버 증설, 영상 제공 소프트웨어와 사이트 접근 방식 개선 등에 나섰다.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은 예산 규모에 달려 있다. 2002년 개소 당시 800건이었던 동시 접속 가능 용량이 지금은 5배 이상 확대됐다”며 “모바일을 통한 교통정보센터 방문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한꺼번에 최대 1만 건이 접속해도 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범죄조직에 속은 20대 구하기 ‘영화 한편’
“도와달라” 가족 신고 받은 연동지구대 합병희 경감
상하이行 탑승 확인… 현지 총영사관 연락 신병 보호

퇴직을 앞둔 제주서 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합병희 경감(사 진)의 침착하면서도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범죄조직에 속아 해외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합 경감은 “아들이 범죄조직에 속아 해외로 출국했다”며 도와달라는 보호자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신병 보호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전 7시35분쯤 신고 접수 당시, 신고자의 아들 A씨(26)는 이미 제주국제공항을 떠나 출국한 상태였다. A씨는 10년간 우울증을 앓는 상태로, 국경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에 속아 중국으로 향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합 경감은 범죄조직에 연루

돼 중국에 입국하는 순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제주공항 내 해당 항공사 매니저를 통해 비행 중인 항공기에 연락을 시도했다. 또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연락해 신병 보호 협조를 구했다.

이 같은 합 경감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상하이 현지 공항에서 A씨를 발견, 보호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가량 보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의 가족은 “한 편의 영화를 찍은 기분이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경찰관 덕분”이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오는 6월 퇴직하는 합 경감은 “마지막까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린 22일 제주시 연북로에도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주말·휴일 평년기온 회복할 듯

한파 내습 20일 이후 계속된 눈 날씨에 교통사고 등 잇따라

23일 제주를 이어지는 눈 날씨 속에 다소 춥겠다. 이후 주말과 휴일은 구름 많은 날씨로 평년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전(0~6시)과 낮 시간대(정오~3시)부터 오후(6~9시) 사이에 산지와 중산간에 1~3cm, 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다. 이어 24~25일에는 구름 많겠고, 다음주를 시

작하는 26~27일 또 다시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제주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 온도는 낮아 더 춥겠다.

23일 아침최저기온은 1~3℃(평년 2~4℃), 낮최고기온은 9~10℃(평년 8~10℃)가 되겠다. 24일 아침최저기온은 3~7℃(평년 2~3℃),

낮최고기온은 8~10℃(평년 8~10℃)로 평년기온을 되찾겠다.

주말인 25일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후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아침 기온은 2~5℃, 낮 기온은 5~12℃로 평년(최저기온 3~4℃, 최고기온 8~11℃)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서 1.0~3.0m로 일겠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제주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며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 제주시 노형동, 10시46분 조천읍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43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이정표가 떨어졌고, 21일 오후 3시55분쯤 제주시 연동에서는 간판이 추락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백금탁·양유리기자

사귀던 연인 흥기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오랜 기간 사귀던 연인을 흥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 남)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20대)씨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 중 화

가 나 주방에 있던 흥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6년간 사귀면서 수차례 교제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고 결국 살해하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도청 ‘주민상담실’ 연평균 900여 건 처리

법률·세무 등 무료 상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민상담실’에서 연평균 9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8월 문을 연 주민상담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945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연평균 900건이 넘는 건수다.

도청 민원실 내에 있는 주민상담실은 법무사 8명, 세무사 2명, 감정

평가사 1명, 행정사 2명 등 13명의 위촉 상담관을 뒀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들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40건(53.3%)이 복잡한 민원 처리 절차나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거였다. 이어 토지·건물 분쟁, 혼인·이혼 관련 법률 문제 2786건(29.5%), 세무·감정 평가 상담 1624건(17.2%)이다. 전선희기자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굴,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자회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